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에페소의 7인 젊은이 순교자들

마태오 제 8주일

성 스테파노스 보제순교자(이장)

제 7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제 7조 부활찬양송 / 82, A 216

•주일 입당송 / 14, A 42

•순교자 찬양송 / 84, B 265

•성당 찬양송

•구세주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B 183

•사도경 : I고린토 1:10~17 / 봉독서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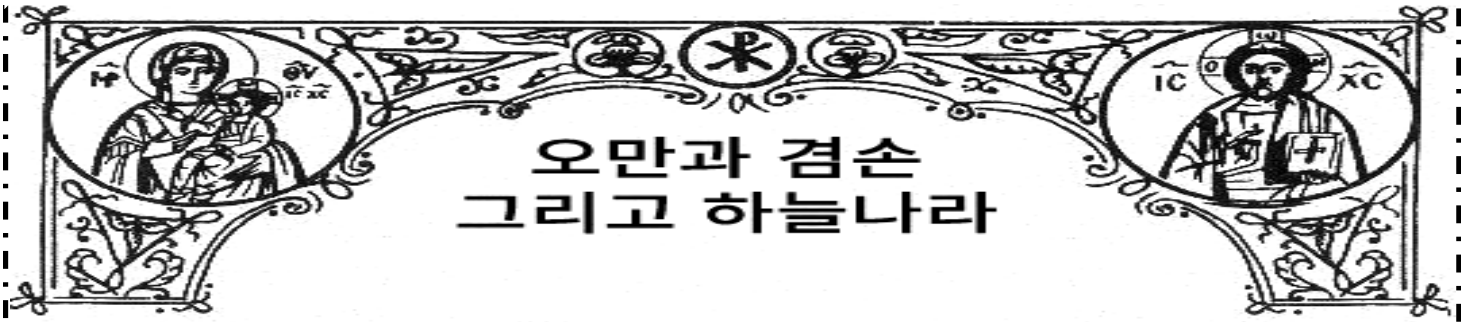
•복음경 : 마태오 14:14~22 / 112, B 4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에페소의 7인 젊은이 순교자들

성서와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보아도 믿을 수 없고 일반적이지 않고, 처음 듣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우연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전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느님에게는 어떠한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8월 4일 축일로 기념하는 에페소의 7명의 젊은이들이 194년 만에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만과 겸손 그리고 하늘나라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며 오만은 죄의 시작이다’ (집회서 10:12-13)

오만한 사람은 죄를 짓기 시작한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은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남에게 공격을 받으면 그에 대응하는 복수를 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낮아진 것 같은 수치심을 느껴 상대를 공격하며 곤경에 빠뜨린다.

또한 이들은 가정을 비롯해 이웃이나 내가 속한 사회의 관계망 속에서도 오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주변인들과 잘 지내다가도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 생각되면 상대를 공격하며 괴롭히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어깨를 으쓱댄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먼지와 재가 뽀낼 수 있는가? 인간의 오장육부는 살아생전에 벌써 썩어간다’(집회서 10:9)

오만함에 대조되는 겸손함은 교회의 가르침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덕목이다. 겸손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를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함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실 때도 하신 말씀이 ‘회개하여라’였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여 겸손해지라고 가르치셨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33년간 지상에 머무시면서 두 사람의 만남에 감탄하셨다. 그중에 한 명인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 간청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또 다른 한 명은 백인대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하인이 앓고 있는 중풍병을 고쳐주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 백인대장의 간청에 따라 주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백인대장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저의 집으로 모시겠습니까, 말씀 한 마디만 하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이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에 주님이 감탄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리와 백인대장의 겸손한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살린다 해도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고개만 숙이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세리와 백인대장처럼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 큰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하느님은 각 사람을 작은 교회로 만드셨다.”

(아토스 성산의 파이시오스 성인, +1994년 안식)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 “나는 작은 성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그곳의 분위기가 큰 성당보다도 내면을 성찰하는 데 더 낫고 그래서 기도도 더 잘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 “성당의 벽면이

성화로 장식되어 있지 않거나 아름다운 이콘으로 이루어진 성화대(이코노스타시스)가 없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고 성찬예배에 충실히 참여하지 못한다.”

- 여러분, 이런 생각은 식욕이 없으니까 입맛이 돌아오게 하려고 음식에 소금과 후추를 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화나 다른 장식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 물론 일정한 역할도 하고, 도움도 되지요!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마술이나 마법처럼 계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은 이런 물질적 요소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든지, 또는 기차나 버스를 타고 있든지, 길을 걷거나 산 위에 또는 동굴 안에 있든지 기도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교회로 만드셨고, 우리는 어디든지 그 작은 교회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고린토 1

서 3:16) 그리고 덧붙이기를 “여러분의 몸은 ...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고린토 1서 6:19) 라고 한 것입니다.



아타나시아

주보소식

구세주 변모 수도원과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8월 6일(목)은 구세주 변모 수도원의 축일이며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축일입니다. 축일을 맞이하여 수도원이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수련장이 되어주기를 기원하며,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께서도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셔서 당신의 영적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교구

성모안식 축일 준비

8월 15일 성모안식 축일을 맞이하여,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성모 소기원의식□예배를 드립니다. 신자 분들에게는 □성모 소기원의식□예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참여해주시고, 금식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우리들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면서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만 허용됩니다.)

구세주 변모 축일 예배 안내

올해 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은 수도원 성당의 협소한 공간문제 등 코로나19 방역의 어려움으로 예년처럼 수도원에서 축일 축하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 축일에는 각 지역성당에서 축일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자 분들에게서 각 지역성당에서 축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에 드리는 감사서신

지난 주 주보 소식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서 성 소피아 성당 박물관의 이슬람 모스크 전환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께서 7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지지와 공감해준 슬픔에 대한 감사의 서신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화답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답신은 7월 23일(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성모안식 성당 재건축 현황

지난 7월 25~26일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전주 성모안식 성당에서 토요일 대만과와 주일 성찬예배를 일라리온 정종혁 신부와 요한 박인곤 보제와 함께 집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찬예배 후에는 신자들과 함께 성당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현황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 마리아의 중보로 성당 재건축이 잘 완성되길 기원합니다.

주간예식

8월 6일(목) 구세주 변모 축일

오전 9시 - 축일조과 및 성찬예배(이 날은 생선류만 허용됩니다.)

